

여러분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에도시대에 태어난 전통예능과 노가쿠가 지금 시대에도 남아있는 도시인데,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전략으로 문화를 자극하여 시민 생활을 풍요롭게 삶의 질을 높여 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케스트라·양상블 가나자와’의 활동과 프랑스 낭트시와 제휴하여 개최한 ‘라·폴·줄네’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가나자와 시내 중심부 20 군데의 회장에서 150 곡의 연주를 전개하는 ‘가나자와 JAZZ STREET 2010’을 작년에 이어 개최합니다.

이 음악 이벤트는 재즈를 통한 ‘시내의 변화 창출’, ‘미래를 짚어질 인재 육성’을 지향한 것입니다.

이벤트는 세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번째는 일반 참가자와 학생들이 시내 중심부 야외광장과 길거리에서 펼치는 ‘길모퉁이 재즈라이브’, 두번째는 24 시간·365 일 이용할 수 있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에서 열리는 ‘재즈공방·워크숍’, 세번째는 일본 국내외 탐 아티스트가 라이브 하우스와 홀에서 펼치는 ‘스페셜 콘서트’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기획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아티스트를 초대하며, 그 외에도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즈 팬’ 여러분을 초대해서 재즈의 매력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심포지움 ‘재즈 담의’ 등도 개최합니다.

작년에 8 만명이 넘는 분들이 즐겨주신 이 이벤트의 올해 개최기간은 9 월 18 일(토)~20 일(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나자와의 역사적인 거리에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부디 참가해 주십시오.

<http://kanazawa-jazzstreet.jp/>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합니다.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